



신앙계와 여명학교 공동 캠페인  
통일 일꾼을 키웁시다

##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은 통일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 조명숙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교감으로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한 야학 프로그램인 '자유터 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라는 씨앗을 통해 통일 이후 새롭게 세워질 북한 사회라는 나무를 내다보고 부지런히 씨앗을 키워 나가는 일에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97년 중국에서 우연히 탈북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는 형제들을 보고 신앙인의 양심과 의무를 저버릴 수 없어 상황과 능력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돕게 되었는데 당시는 국가 보안법이 삼엄했던 때이고 탈북자를 만난 경험도 없는데다 그동안 받았던 교육 탓으로 두렵고 무서웠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중국 국경지역에서 탈북 형제들을 긴급구호하며 지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 90%는 필요한 도움을 받은 후 가족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약 10%의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북한의 현실과 진실-사회주의가 지상낙원이 아니라는)도 억울하고 분하다며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제 저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라며 두려워했고 모진 고생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중국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집과 땅을 사주거나 아는 조선족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라 하여 남자들은 밥만 주며 노예노동을 시켰고 여자들은



여명학교 학생들과 자유터학교 학생들 자녀인 희망이들(맨글사진)



“  
우리는 남한사람에게 자격지심을 갖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배워서 통일 후 북한에 가서  
그 인민을 위해 일한다면 그 말은 들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

은 한국 바람이 불어 농촌을 빠져나간 조선족 여인들의 자리를 대신 메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령기가 다 되어도 학교에 가기는 커녕 집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탈출하여 농촌에 살면서 신분이 밝혀지면 여자를 탐하는 못된 자들이 남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고 탈북자들은 불법월경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를 입거나 강도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모진 고난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몸부림쳤습니다.

### 이제 저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당시 중국의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인민들 모두가 전쟁을 원한다는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전쟁을 하면 40%가 죽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굶어서) 60%가 죽는다."고 하면서도 북한 사람들은 돌파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상황을 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저는 어느 때든 그들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며 침묵하는 죄과를 주께서 남한 사람에게 물으실 것만 같았고 그래서 우리가 접한 탈북 형제들에게라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현장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고 6개월이 넘었을 때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15



자유터학교 학생 자녀들인 희망아들과 함께한 필자

“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

명의 형제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것은 통일 연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8, 10세짜리 꼬마와 16, 17세짜리 청소년 그리고 2~30대 8명, 40대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도와 줄 때 느낄 수 없었던 문화와 의식의 차이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제게는 곧 불편함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끼니마다 힘들게 밥을 차려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자들, 여자인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 마음이 딱해서 없는 돈에 요리집에 데려가 한 상 가득 대접을 하면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되니 힘들고 지치고... 저로서는 희생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더욱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운이 없어 북한에서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만 이상하게 만드신 것일까?' 라는 물음 앞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고 북한의 체제하에 있는 사람들 역시 희생자이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고귀한 사람들'을 그토록 왜곡시켜 북한을 제외한 곳에서는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북한 형제들 그 자신들이며 그와 함께 살아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남한의 우리는 그들이 굶주릴 때 돌아보지 않은 죄와 침묵하고 나의 행복 나의 웰빙만을 추구한 죄를 담당해야 할 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그들이 더욱 가엾게 생각되어 열심히 섬기고 가르쳤지만 머리와 마음 그리고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저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문제이지만 나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뛰어든 것이 서로 소통하게 하지 못하는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8, 10세짜리 꼬마들과 16, 17세 청소년들의 교육이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교육을 받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가 쉬울 것 같았고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아이들은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이 아이들에게 모세와 예수,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사랑받으며 또 교육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부모가 바뀌어 밥 한 그릇을 먹고는 '밥 퍼주는 애미나이가 어리잖나?' 하며 제가 밥 퍼주기를 기다리던 아이들 아버지는 스스로 밥을 푸고 사발까시기(설거지)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모든 일을 내게 질문하고, 웃으며 함께 음식도 만들고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하늘의 통일 땅의 통일

귀국을 하여 재정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창고 8평을 임대받아 도배만 하고서 '자유터학교'라는 탈북 청년들을 위한 야학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선생님 우리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통일은 어른들이 시작하겠지만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은 분명 지금의 청소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한 사람에게 자격지심을 갖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배워서 통일 후 북한에 가서 그 인민을 위해 일한다면 그 말은 들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라며 진심어린 충고를 하였고 나는 그 날부터 미친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지금 그 결실이 '여명학교' (탈북 청소년들의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와 '자유터학교' (탈북 청년들의 야학)로 나타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모진 고난을 겪은 탈북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날마다 감사할뿐 아니라 이들이 커서 이 민족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 일할 상상을 하면 행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재정적, 인적 어려움 중에서도 두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탈북 형제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북한 인민을 회복하는 길이며 목사님들이 외치시는 '땅의 통일, 하늘의 통일' (렘 1:10)을 위한 '통일의 일꾼'을 기르는 일이며 특히 신앙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동안 우리의 형제인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고 침묵한 용서를 구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명학교([www.ymschool.org](http://www.ymschool.org))를 돕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국민은행(434701-01-112388-박병식)으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터 학교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학교 홈페이지([www.unischool.org](http://www.unischool.org))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